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광주형 일자리가 여러 과정을 거쳐 타결되었다.

현대차, 광주시, 광주시민, 광주지역 부품업체 등을 위시로 하는 추가 투자자들이 합작투자를 도모하여 새로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고 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노정(勞政)이 연대한 일자리 모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최근의 일자리 문제의 타결책의 선례가 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본래 지역의 연대와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동시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시작된 일자리 모델이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개혁의 요소를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로 정식화하여 추진 가능한 정책 행태로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4대 의제를 달성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간을 이번엔 타결된 노사 간의 협정 하에 자동차산업 부

전 매 광 장

임형섭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광주형 일자리의 지역 내 확산

문에서 이루어내려는 시도가 광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모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상생형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기업 내에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가 넓게 인식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 즉 4대 의제에 대한 실현이 지역 전체에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인증제가 추진되고 있다.

지역기업의 4대 의제별 실태를 보면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많은 실정이다.

기존의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인증지표를 각 기업 차원에서 검토하고, 부족한 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컨설팅, 교육과 함께 외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내에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적합한 인증기업들이 많아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 방안이 결합하게 될 때 광주형 일자리

의 지역 내 확산 효과를 볼 것이다.

지역기업의 광주형 일자리의 실태를 보면 아직 지역기업내 일자리의 질 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도가 미흡하고, 개선 및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 이를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증제 활성화 및 인증기업의 발굴과 확산을 통한 선제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기업의 광주형 일자리 인증제 참여 확대, 인증제 홍보 강화, 인증제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확산 등이 필요하다. 둘째,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지역기업내 여건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셋째,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및 지원 방안을 강화시킨다. 인증 기업, 근로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확대 하고, 인증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자급에 해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난관을 걸쳐 합의를 이루어 낸 광주형 일자리가 단기적인 실험이 아닌 성공적인 정착이 되기 위해 지역 내, 지역기업 전체에 확산되는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 설

경찰관 비위행위 처벌 강화해야 한다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년~2019년 8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31명에 달한다.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2명,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9명이다. 징계를 받은 유형도 단순 음주운전에서부터 음주 차량사고까지 다양하다. 특히 운항호범 등으로 최근 음주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자료를 보면 기간 및 강도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광주가 1명, 전남이 3명으로, 모두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직무와 직위 불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있다. 유착비리 혐의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명의 경찰관이 기소됐다.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금품료를 수수하거나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들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높은 준법의식을 갖추어야 할 경찰관이라는 점이다. 시민들의 범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되레 범법행위에서부터 음주 차량사고까지 다양하다. 특히 운항호범 등으로 최근 음주단속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성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자료를 보면 기간 및 강도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광주·전남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광주가 1명, 전남이 3명으로, 모두 기소의

한글파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뽀시래기' '롬곡요늬' '스라벨' 'H워열V'.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는 외계·신조어다. 신세대들이 말하는 '아민정음'이라는 것이다. '뽀시래기'는 귀여운 사람이나 동물을 부스스리게 비유한 말이고, '롬곡요늬'는 폭풍노물을 180도 뒤집어 놓은 말이며, '스라벨'은 공부와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우리민족 최대의 창조물인 한글의 훼손과 파괴가 심각하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SNS가 일상화되면서 파괴행위는 그 심각성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젊은 층이 주도하는 이 같은 한글 파괴행위는 자칫 세대 간 심각한 문화 단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그 시대대를 상징하는 젊은이들의 새로운 문화라는 시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조어는 통상 유행어처럼 사용된다"는 순간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한글파괴로 보

기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본연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자모를 바꾸는 방식으로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한글파괴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크다. 아직 문장력과 어휘력도 갖추지 못한 어린 학생들이 유행어 편승, 정체불명의 한글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게 그것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정확한 한글을 배우고 이를 아름답게 활용하기를 바란다. 한글은 우리 민족이 만든 세계 최고의 언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올해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Hangul Day)로 제정하는 결의안(ACR 10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별도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할 것이다. 한글파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에 세 이



임인택

수필가

바람결이 고운, 가을바람이 불어온다. 역사의 숨결에 부딪치는 가벼운 바람소리. 이른 아침 이슬 내린 들길을 걸으며 생각한다. 첫사랑처럼 설렘을 주는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이따금 궁금하기도 하다.

가을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땅을 밟는 소리, 저물녘 풀벌레들의 쓸쓸한 노랫소리, 어느 해 늦가를 어머니의 입술에 남아있던 마지막 숨소리. 그때 어머니는 무슨 말을 일러주고 싶었을까. 해가 갈수록, 소리가 쌓일수록 귀가 점점 어두워지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가끔 돌아 앉아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가끔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두려움을 느낀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면 미움이 된다. 행복이란 삶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때의 일이다. 행복한 순간 말보다 미소가 앞선다. 사랑한 사람의 행동에, 아름다운 경치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말보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읊머하며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불행은 부르지 않아도 온다. 그러나 행복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은 흐름이다. 어쩌면 현재의 사랑은 오랜 옛날부터 시작하여 지금을 거쳐 인연이라는 이름을 빌려 먼 미래로 이어져 갈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로 가을은 소리 없이 왔다 슬며시 사라지는 계절이 되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단풍은 제 색을 찾아 물 들고 조용히 낙엽을 떨어뜨린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여름 꽃들이 등성등성 남아있는 화단가에, 엇그제까지 붉은 꽃무릇이 하늘을 향해 정열을 불태우고 있었는데, 어느새 꽃대가 지고 난 자리에 초록 잎새가 무성하다. 없는 잎을 향해 있는 꽃대가 손을 내밀면 모습이 얼마나 며스스런지 모른다. 사실 우리네 마음 깊은 곳에 서도 슬픔과 기쁨이 그러하고, 미움과 사랑이 그러하다.

흐린 하늘에 기어올라 가을비가 내린다. 우산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안개비가 내린다. 화단 한쪽 모퉁이에 봄에 심은

부추의 꽃이 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거린다. 하얀 부추꽃에 자잘한 빗방울이 수많은 음포가 되어 내려앉는다. 노래를 실은 빗방울은 내 마음에 동그라미를 그린다. 흐르는 것은 아름답다. 꽃가에 앉아 지는 석양을 새는 노래로 비우고, 꽃은 향기로 비우며, 나는 마음에 내려앉은 동그라미로 비운다.

오랜만에 감광성의 노래를 듣는다. 그의 생이 너무 짧아 지금도 눈물 나게 한다. 그의 노래들 대부분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우울한 정서를 담고 있어 한 소절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가만히 눈을 감게 만들고 옛 추억에 잠기게 만드는 감미로운 목소리.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에 이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좋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마지막 부분에 휘파람 소리마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다. 함께 휘파람을 따라 하며 저, 그럼 더 멋진 가을과 내일의 새로운 꿈을 위해, 시간의 상념을 훌훌 털어내고 바람 불어오는 그곳으로 달려가 볼까. 찾기를 뜨거운 물에 띄운다. 오래 놀러 있던 향기가 피어난다. 역시 이런 착직한 하늘을 걷어 내는 데는 딱따근 발효차가 좋다.

특 지 광 장

지난 7월 실업률은 2000년 이후로 최고치인 3.9%까지 치솟았다. 자신이 몸담을 직장을 구하기 위해 구직자들은 오늘도 다방면으로 뛰어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취업 여건을 이용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취업사기'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취업사기'란 취업을 명목으로 구직자들에게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 유형으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약 26%의 구직자가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 전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크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경력서, 졸업(성적)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취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담당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채용공고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연락을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형은 금전 탈취 유형이다. 주

로 월급계좌 확인을 빌미로 통장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입사지원 교육비 등 명목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유형으로 구직자에게 통장이나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또 다른 사기범죄의 도구인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구직자 또한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구직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는 통장 사본만 요구할 뿐 절대 통장 비밀번호나 계좌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으니 이런 경우에는 취업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하순경찰서 경무계 순호진

구직자 꿈 좇먹는 취업사기 근절돼야

전통시장 활성화 혁신적 방안 고민해야

기지수첩

남도의 풍성한 가을축제와 맞물려 지역전통시장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며 상인들의 얼굴엔 모처럼 활짝 웃음이 있다. 지역전통시장이 문화공연, 패션쇼, 장보기 체험, 수산물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앞세워 새로운 가을 나들이 명소로 떠오르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남광주시장 수산물 축제에는 평소 대비 2~3배 많은 3만 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시장 인지도와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방문객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지역전통시장은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전국에는 1,450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그중 광주·전남지역에는 131곳이 영업 중으로 각 시·군·구 별로 평균 5개가 있는 셈이다. 그만큼 전통시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모여 장사하는 곳으로 서민들과 아주 밀접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대형 자본에 밀려 전통시장이 '뒤틀리(?)'를 맞고 뒷전에 밀리고 있다. 여전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다.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제를 개선한다면 고객의



길윤현
경제부 기자

발걸음을 끌 기회는 충분하다. 우선 편리한 장보기 환경 조성이다. 카드 결제 거부, 가격 미표시, 주차공간 협소, 위생 문제 등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친절할 고객 응대는 두말 할 것 없다. 유통여건 변화에 맞춘 대응도 하나의 방안이다. 온라인 판로 확보, SNS 홍보, 인플루언서 마케팅, 1인 크리에이터 방송, 스마트 유통 등도 적극 추진해 볼 만하다.

전통시장의 변화는 시작이 중요하다. 한 점포가 바뀌면 옆 점포도 바뀔 수밖에 없다. 작은 움직임 하나로 시장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소비패턴에 맞춘 미래 지향적 정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상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계기로 지역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길 기대한다.

| 생활정보전화 | | 긴급전화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기상예보 | 131 |
| ▲응급질병상담 | 1339 | ▲법률구조상담 | 132 |
| ▲미아·가출신고 | 18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 673-9001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 121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 123 |
| ▲응급의료센터 | 1339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1989년 6월 29일 창간 | | 전남매일 | |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 |
|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 | | 편집인 金善勇 | | 주필 李斗憲 편집국장 朴元雨 | |
| 대표전화 062) 720-1000 | |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 | | |
| 정 치 부 (062) 720-1060~62 | 경 제 부 (062) 720-1066~67 | 사 회 부 (062) 720-1050-54 | 사 회 2 부 (062) 720-1043-45 |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
|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 사 진 부 (062) 720-1040 | 편 집 부 (062) 720-1070 | 기 획 실 (062) 720-1005 | 논 설 실 (062) 720-1032 | 월 간 국 (062) 720-1006-07 |
| 관 리 국 (062) 720-1012 | 판 매 국 (062) 720-1098 | 사 업 국 (062) 720-1011 | 광 고 국 (062) 720-1016-17 |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4 • FAX (062) 720-1080-82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1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
|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주(회사)광주광역시 | | | | | |